



발간자료

• **전략 Weekly:**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만큼 여진의 가능성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매도 대응은 지양할 필요. 전일 단기 급락으로 한국 증시 PER은 6.9배 수준까지 하락. 당사는 하반기 전망에서 6.8배 수준인 7,590pt를 하단으로 상정. 수급 변동 등에 따른 일시 이탈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 실적 시즌 이익 전망치 추가 상향 가능성 감안 시, 이하 영역에서는 저가 메리트 향유에 주력할 필요

(투자전략 조병현)

• **레저(Overweight):** 6월 카지노 실적은 롯데관광개발이 드랍액 2,662억원(+10.1% YoY), 순매출 487억원(+36.1% YoY)으로 견조했으며, 낮은 기저 홀드올 효과도 반영. 파라다이스와 GKL은 전년 대비 드랍액은 증가했으나, 5월 연휴 효과 소멸과 월드컵 영향으로 전월 대비 실적은 감소. 월드컵 시기와 겹치며 카지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7월 중순 월드컵 종료 후부터 카지노 수요 회복 전망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화장품/의료기기(Overweight):** K-뷰티는 SNS·이커머스 중심의 소비 구조와 K-컬처 확산을 기반으로 Stage 2에 진입했으며, 알고리즘 기반 제품 발견과 구매가 성장을 견인. Stage 3의 핵심 동력은 GLP-1 확산으로, 체중감량 이후 근손실·탈모·피부탄력 저하 등 새로운 니즈가 헤어케어·이너뷰티·더마·미용의료 시장 확대를 촉진. 화장품과 미용의료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Science-based Beauty로 진화하고 있어, K-뷰티의 전방위적인 확산에 따라 의료기기/화장품 업종 매수 의견 유지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NAVER_BUY/40만원:** 2Q26E 실적 매출 3.4조원(+16.7% YoY), 영업이익 5,787억원(+11.0% YoY)으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 전망. 광고·커머스·글로벌 C2C 성장이 실적을 견인하며, 쇼핑 수수료 인상과 해외 플랫폼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 생성형 AI 수익화는 7월 중순부터 CPC 방식으로 시작되며, AI 매출 가시화 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인터넷 업종 Top Pick 유지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대웅제약_BUY/22만원:** 2Q26E 영업이익은 678억원(+17%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이며, 미국향 나보타 수출 급증이 실적 성장을 견인. 나보타 중심의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와 건기식·디지털헬스케어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 목표주가 22만원 상향. 향후 GLP-1 마이크로니들 패치 임상 결과에 따른 비만 치료제 및 룬제비티 플랫폼 가치 확대 기대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